

일본어 역 고궁 안내문의 문제점 고찰: 매체별 문제점 종합 분석

정 일 영
(경희대)

1. 연구범위 및 목적

관광자원해설 안내문은 기본 구조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고, 해설 내용이 정확, 명료하여 신뢰성이 있어야 하며, 관광객으로 하여금 제시된 안내문의 내용을 이해하게 하고 그들의 인식 수준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외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안내문은 상기의 조건들을 충족시키면서 원문 텍스트의 정보를 제대로 번역 텍스트로 옮겨 놓아야 하고, 번역 내용이 정확성과 자연스러움을 지닌 번역문이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관광자원해설 안내문의 일본어 번역문은 과연 상기의 조건들을 충족시키고 있는 것인가?

한국관광공사의 “외래 관광객 실태조사”¹⁾에 따르면 한국을 찾는 일본인 관

1) 관광정책수립과 수용태세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한국관광공사에서

광객중, 인터넷을 통해 관광정보를 입수하여 개별여행을 하는 일본인 관광객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서울을 찾고 있고, 쇼핑을 위해 찾고 있는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다음으로 이들이 많이 찾는 곳은 고궁이라고 한다. 또한 이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사항은 의사소통이었고, 그 다음이 안내 표지판이었다.

필자는 이상과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고궁(조선시대 5궁)을 해설하는 인터넷매체, 인쇄매체, 표지매체의 우리말과 일본어 역 관광안내문을 2002년 4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약 30여 개월에 걸쳐 촬영 또는 수집하였고²⁾, 이를 바탕으로 매체별 일본어 역 고궁 안내문의 문제점을 발표한 바가 있다.

본 연구는 고궁 관련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매체별 일본어 번역안내문의 내용이 우리말 원문 텍스트의 정보를 1)일관성이 있고 신뢰성이 있는 번역 텍스트로 옮겨 놓았는지 2)번역문은 자연스러운 일본어로 번역되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그동안 필자가 수집 분석해온 매체별 문제점을 종합 분석한 것이다. 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 매체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종합 정리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관광안내문의 한일 번역 시, 관련 기관이나 번역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휘목록 작성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삼는다.⁴⁾

는 1975년부터 매년 “외래 관광객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필자는 이들 자료 중 2000년~2003년의 자료에서, ‘일본인 관광객의 입국비율, 여행정보 입수경로, 여행형태, 방문지, 서울 내 방문지, 불편사항’에 대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범위를 선정하였다.

- 2) 인쇄매체인 리플릿은 2002년 4월에, 인터넷 매체인 웹 사이트 자료는 2003년 4월과 11월에, 표지매체인 각 궁의 안내문은 2002년 4월과 9월, 2003년 11월에 입수한 자료를 활용한 것이며, 이들의 변동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2004년 6월과 10월 다시 사진촬영을 하거나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처럼 자료 수집에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된 가장 큰 이유는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계기로 고궁을 비롯한 전국의 관광안내문의 내용이 달라지거나 재정비되었기 때문이다.
- 3) 본 연구는 정일영(2002, 2003, 2004)에서 다루었던 문제점들을 종합 분석한 것으로, 각 매체에서 나타나는 오류 사례가 동일한 경우가 다수 있었음을 밝혀둔다.
- 4) 세 매체에 나타나는 문제점의 종합 정리는 [3. 오류 유형별 문제점 종합 분석]에, 관련 기관이나 번역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휘목록은 [4. 정리 및 제언]에 지면 관계상 그 일부만을 제시한다.

2. 선행연구 및 분석방법

한일 월드컵 기간 중 관광안내소에서 무료로 배포된 일본어 관광안내책자를 대상으로, 한일 번역에서 보이는 오역의 유형을 조사한 김명순(2002)은 오역의 유형을 【외래어 표기와 한자, 품사 및 부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나누어 발표하였다. 그러나 김명순(2002)은 오역의 유형 중 조사, 동사와 같은 품사의 오역을 직역으로 인한 오역과 함께 다루어 놓아, 오역의 유형 분류가 체계적이지 않았고, 어학적인 면에서의 오류의 유형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 또한 분명히 드러내주지 못했다.

국내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의 연혁 및 유래에 관한 일본어 안내문의 번역 실태를 조사한 김경호(2003)은 오역의 유형을 【표기의 오류, 어휘에 관한 오류, 문법적 표현에 관한 오류, 문체 표현의 오용, 띄어쓰기 및 부호 사용의 오용】으로 나누어 발표하였다. 김경호(2003)이 말하는 상기의 오역 유형은 김명순(2002)보다는 유형 분류가 체계적이기는 하지만, 이 또한 어학적인 면에서의 오용만을 다룬 것이었다. 그러나 약 30여 개월에 걸친 조사를 통해 필자는 일본어 역 관광자원해설 안내문에는 어학적인 면에서의 오류 못지않게 전통문화 및 역사적 사실을 나타내는 어휘상의 오류도 심각한 상태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필자는 정일영(2002) 「일본어 역 관광자원해설 리플릿에 나타나는 오류에 관한 연구」와 정일영(2004) 「고궁 길잡이시설 해설안내문의 일본어 번역문 연구」에서는 [어학적인 면에서의 오류와 전통문화 및 역사적 사실을 나타내는 어휘상의 오류]로 나누어 조사 분석 발표한 바가 있고, 정일영(2003) 「웹 사이트의 일본어 역 관광안내문 오류에 관한 연구」에서는 상기의 두 가지 오류에 [기타의 문제점]을 덧붙여 셋으로 나누어 조사 분석 발표한 바가 있다.

일반적으로 문학작품의 번역 오류에 관한 연구에서는 오류의 유형을 [문자(표기), 문법, 어휘, 의미, 문체상의 오용 또는 오역]과 같이 주로 어학적인 면에서의 오류만을 다루고 있으나, 필자의 연구는 문화재를 소개하는 관광 안내문의 번역 오류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세 매체의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크게 둘로 나누어 종합 분석하였다.

즉, 원어민의 철저한 감수가 이루어진다면 비교적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기가 용이하다고 생각되는 [문자, 표기, 문체상의 오류와 문법(표현) 및 어휘상의 오류]는 어학 부문으로, 원어민의 철저한 감수로도 해결할 수 없는 오류라고 생각되는 [전통문화와 관련된 어휘(건축, 문화, 직위 관련 용어)의 오류와 역사적 사실과 관련된 어휘상의 문제점]은 전통 문화 및 역사 관련 부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한일 양 언어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자료의 오류를 확인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취하였다.

우선, 어휘 및 안내문 내용의 확인 작업을 위해서 한일 양국의 국어사전, 한일 양국의 건축양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문헌, 양국의 역사와 관련된 문헌과 인터넷 일본어 검색 사이트인 goo와 문화재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문화재 용어사전 등을 이용⁵⁾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일본어 역 관광안내문 전체에 대한 번역 오류를 파악하기 위해서 현재 일본에서 일본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원어민과 한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 및 일본어 교육을 담당하는 원어민 등 총 17명에게 감수를 받았다.⁶⁾

3. 오류 유형별 문제점 종합 분석

- 5) 본 연구에서 어휘 및 안내문 내용의 오류 확인 작업을 위해 사용한 사전류는 아래와 같다.

goo사전 http://dictionary.goo.ne.jp/cgi-bin/jp-more_print.cgi?MT

국립국어연구원. 1999. 『표준국어대사전 상·중·하』. 서울: 두산 동아.

金田一京助 外五人. 1997. 『新明解國語辭典』. 東京: 三省堂.

新村出編. 1978. 『廣辭苑 第二版補訂版』. 東京: 岩波書店.

日本史廣辭典編集委員會. 1997. 『日本史廣辭典』. 東京: 山川出版社.

三省堂編修所. 1978. 『廣辭林 第五版』. 東京: 三省堂.

大阪外國語大學 朝鮮語研究室編. 1986. 『朝鮮語大辭典 上·下卷』. 東京: 角川書店.

大島建彦 外五人. 1982. 『日本を知る事典』. 東京: 社會思想社.

堀越喜與志. 2002. 『圖説建築用語事典』. 東京: 實教出版株式會社.

- 6) 인쇄매체의 경우는 일본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25세 이상의 성인 남녀 8명, 인터넷 매체의 경우는 유학생 및 일본 거주 일본인 남녀 6명, 표지매체의 경우는 일본거주 원어민 3명, 총 17명의 원어민으로부터 안내문 전체에 대한 감수를 받았다.

세 매체의 오류 유형별 문제점을 상기의 분석 방법에 따라 크게 [1.어학 부문]과 [2.전통문화 및 역사 관련 부문]으로 나누어, 각 부문의 세부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3.1. 어학 부문

원어민의 철저한 감수가 이루어진다면 비교적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가 용이하다고 생각되는 부문이다.

3.1.1. 문자(표기) 및 문체상의 문제

한자 사용의 오류, 외래어 표기상의 오류, 현행 일본어에서 사용되지 않는 구한자(舊漢字)의 사용으로 인한 오류, 띄어쓰기의 오류, 문장부호의 오류, 문체상의 오류들을 말한다.

(1) 오자(誤字)

오자(誤字)의 오류에는 크게 한자 사용의 오류와 외래어 표기 시 사용되는 가타카나 표기의 오류가 있었다. 첫 번째로는 세 매체 모두 동음의 한자나 유사한자의 사용으로 인한 오류가 다수 나타났으며, 이는 컴퓨터에서 한자 변환 시 일어날 수 있는 오류로서, 번역을 담당한 사람이나 감수자가 철저히 감수를 한다면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오류라고 생각한다.⁷⁾

두 번째로는 우리의 궁과 전각명에 대한 가타카나 표기의 문제로, 인쇄매체인 리플릿 안내문의 경우는 우리의 궁과 전각명에 대한 가타카나 표기가 없었으나⁸⁾, 인터넷매체인 Tour2korea의 안내문은 궁명만을, Visitseoul의 안내문은 궁명 및 전각명 모두를 가타카나로 표기하였고, 표지매체인 길잡이시설 안내문은 촬영한 사진 122매 중 26매의 안내문의 궁명과 전각명이 가타카나로 표기되어 있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 가타카나 표기 중에는 「국어의 가나 문자 표기법」의 규정에 어긋난 표기가 있었다는 점과 가타카나 표기를 한 곳과

7) 제작 과정의 오류로 인한 오자도 있을 수 있으므로, 제작을 마친 후의 최종 점검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8) 필자가 처음 리플릿을 수집할 당시의 것에는 가타카나 표기가 전무하였으나, 2003년 가을 교체된 리플릿의 경우, 덕수궁의 리플릿에는 가타카나 표기가 있었다.

하지 않은 곳이 있어 일관성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모든 가타카나 표기가 대괄호로 처리되어 있는데 반해 경희궁의 전각 두 곳에서만 위 첨자를 사용하고 있어 이 또한 일관성이 없었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이와 같은 상기의 문제점을 해결한다면, 우리의 궁과 전각명에 대한 가타카나 표기는 일본식 발음이기는 하지만 일본인 관광객으로 하여금 우리말에 가까운 발음으로 우리의 궁과 전각의 이름을 읽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된다.

(2) 구한자(舊漢字)

세 매체 중 인터넷 매체인 Tour2korea의 안내문에는 현재 일본에서 사용되지 않는 舊漢字 사용으로 인한 오류가 두드러졌고, 인쇄매체인 덕수궁의 리플릿 안내문에는 일본에서 사용되는 상용한자표의 통용글자와 舊漢字를 혼용한 오류도 발견되었다. 표지매체의 경우, 경희궁의 안내문에 비교적 많은 수의 오류가 발견되었으며, 경복궁의 근정전 보수공사(2003, 11, 12)가 완료되기 전에는 경복궁의 안내문에도 많은 수의 오류가 있었다. 이처럼 일본에서 사용되는 통용글자가 아닌 舊漢字의 사용은 김경호(2004)의 주장대로 같은 한자문화권의 일본인, 특히 젊은 세대에게 있어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안내 설명문이 되므로, 번역사뿐만 아니라 번역물 제작 과정에서도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3) 띄워 쓰기

띄워 쓰기의 오류는 인터넷 매체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인쇄매체에서는 덕수궁의 리플릿에서만 다수 발견되었고, 표지매체에서는 창경궁의 안내문 중 한 곳에서만 오류의 사례가 있었다. 이는 번역사가 일으킨 오류였는지 아니면 제작 과정에서 일어난 오류였는지 확인 할 수는 없었으나, 번역사가 자신이 번역한 번역물 제작 후, 그 번역물에 대한 철저한 검토 과정을 갖는다면 범하지 않아도 될 오류라고 생각한다.

(4) 문장부호

일본어로 문장을 쓸 경우, 종서(縱書)의 경우에는 「、。』」으로, 횡서(橫書)

의 경우에는 「, 。」 「、。」 「, .」의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문장을 쓰는 것이 원칙이다(日本語教育學會編 309). 본 연구에서 수집, 활용한 자료는 모두 횡서로 되어 있었고, 거의 대부분이 「、。」를 사용하고 있었다.

각 매체별 문장부호의 오류 사례를 보면, 인터넷 매체에서는 오류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인쇄매체의 경우 창덕궁에서는 한 곳, 경희궁에서는 「, 。」과 「、。」를 혼용한 오류가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고, 표지매체에서는 상기와 같은 오류는 한 곳 뿐이었으나, 문장을 읽는데 숨이 차다고 느낄 정도로 「、」의 사용 빈도가 너무 높았다.

한일 양국의 문장부호 사용법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번역사는 이에 대해 숙지하고 번역시 유의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5) 문체

일본어 문장쓰기는 일반적으로 보통체라고 하는 [だ・である體]와 정중함을 나타내는 [です・ます體]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세 매체 중 인터넷 매체인 한국관광공사의 Tour2korea의 안내문만이 정중함을 나타내는 문체인 [です・ます體]를 사용하였고, 서울시의 Visitseoul의 안내문과 나머지 두 매체의 안내문은 보통체 중에서도 공식적인 문장에서 주로 쓰이는 [である體]를 사용하고 있었다.

한국관광공사의 Tour2korea 안내문은 정중함을 나타내는 [です・ます體]를 선택하여 문체상으로는 일관성을 보여 주고 있으나, 문장의 끝을 명사로 끝내는 [體言止め]의 형식을 취한 곳이 여러 곳 있었다. 일본어에서 [體言止め]는 독자의 주의를 촉구하거나 문장을 간결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이는 독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지만, 조잡하고 경박한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매뉴얼과 같은 문장에서 사용할 경우 주의를 요한다(テクニカルコミュニケーション研究會編 86). 따라서 Tour2korea의 안내문은 모두 문장의 끝을 일관성 있게 [です・ます體]로 끝맺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서울시가 제공하고 있는 Visitseoul의 안내문의 경우에는, 보통체 중에서도 일기와 같은 사적인 문장에서 사용하는 [だ體]와 논리적인 문장이나 공식적인 문장에서 사용하는 [である體]를 혼용한 오류가 많았고, 인쇄매체의 경우에는 덕수궁 한 곳에서만, 길잡이 시설 안내문의 경우에는 덕수궁의 중화전 설

명에서만 오류가 있었다. 이 또한 문체상의 일관성을 보여 주기 위해서는 [である體]로 통일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3.1.2. 문법(표현) 및 어휘상의 문제

문법적으로 또는 표현상으로 잘못되었거나, 어휘 사용이 어색하거나 잘못 쓰여 일본어 문장으로서 부자연스럽거나, 부적절한 표현이 되어 문제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문법(표현)

세 매체 모두에서 나타나는 문법상의 오류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조사 사용의 오류와 수동 표현의 오류를 들 수 있다. 각각의 대표적인 사례를 한 가지 씩만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조사 사용의 오류에 대한 사례로는 [고종 황제가 내외 귀빈을 접견하던 곳으로… / 高宗が国内外の貴賓を接見した場所で…]에서 보듯이 일본어 번역문에 [に]를 써야 할 곳에 [を]를 사용한 경우이다. 이는 우리말의 경우, [만나다, 접견하다] 류의 동사는 바로 앞에 오는 명사를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의 대상으로 파악하여 [을/를]의 대격 조사를 사용하지만, 일본어의 경우에는,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의 상대로 파악하여 우리말 [에게]에 해당하는 [に]를 사용하게 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생긴 오류이다.

수동 표현의 오류에 대한 사례로는 [수정전: 정면 10간, 측면 4간으로 기단을 높이 쌓고 그 위에 건물을 세웠다]를 [修政殿: 正面10間、側面4間の基壇を高く積み上げて、その上に建物を建てた]로 번역하고 있으나, 이 문장에서 화제의 초점은 [建てる]라는 동사의 동작주 보다는 동작에 의해 생산되는 대상에 초점이 놓인다고 하는 점과 대응하는 능동문의 동작주를 불문에 부치는 경우 수동문을 쓴다고 하는 수동의 기능적인 면을 생각할 때 수동 표현을 하는 것이 일본어 문장으로서 보다 자연스러운 일본어 문장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세 매체의 일본어 번역문에는 수동 표현을 하여야 할 곳에 우리말 표현대로 능동 표현으로 직역하여 어색한 일본어 문장으로 번역된 곳이 많았다.

상기와 같은 문법상의 오류 외에도 우리말 안내문을 그대로 축자역하여 생

기는 표현상의 오류는 너무 많아, 일본어 원어민들이 감수한 안내문에는 빨간 펜으로 수정을 가한 곳이 매우 많았다. 문법적으로 꼭 잘못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나 일본어 문장으로서 부자연스러운 표현이 되어 있는 문장에 대한 일본어 원어민의 보다 철저한 감수가 필요하다.

(2) 어휘

어휘상의 오류는 우리의 어휘를 한자로만 바꾸어 번역하여 놓음으로써 생기는 오류와 번역을 하는 사람이 일본어 어휘의 쓰임을 잘 알지 못하고 번역하여 생기는 오류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사례로는 [즉조당의 현판은~ / 卽祚堂の懸板は~]나 [박석을 깐 마당에는~ / 薄石を敷いた廣場には~]와 같이 일본어에서 사용하지 않는 어휘인 [懸板]이나 [薄石]을 사용하여 번역한 예를 들 수 있으며, 후자의 사례로는 [지금은 약을 빻던 돌절구만이~ / 現在は、藥を碎く石臼だけが~]나 [다과를 들며~ / お茶を楽しんだり~]⁹⁾와 같이 번역한 예를 들 수 있겠다. 이와 같은 오류는 세 매체의 일본어 번역문 모두에서 발견되었고, 이는 번역사가 원문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축자역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류라고 생각한다.

한일 번역 시 우리말 안내문의 내용을 숙지하지 않고 우리의 어휘를 한자로만 변환시켜주면 번역이 된다고 생각하는 발상을 버리지 않는 한, 이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오류라고 생각되며, 이는 한일 번역 시 특히 주의를 요하는 점이기도 하다.

3.2. 전통문화 및 역사 관련 부문

우리의 전통문화 및 역사를 나타내는 어휘를 일본어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축자역이 되어 나타나는 문제점과 관련된 부문이다.

9) 번역사가 우리말의 [다과를 들며]를 일상적인 회화에서 사용하는 [お茶を楽しんだり]로 바꾸어 번역하였으나, 이는 고종황제가 덕수궁 정관헌에서 커피를 즐기던 사실을 나타내는 문장이므로 일상적인 회화에서 사용하는 어휘인 [楽しむ]보다는 [嗜む]를 사용하여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3.2.1. 전통문화 관련 어휘상의 문제

전통문화와 관련이 있는 어휘는 역어문화에 생경한 개념인 경우가 대다수로, 이와 같은 개념을 번역하는 방법으로는 Barnwell(김효중 79)이 말하는 설명적인 어구를 사용하는 방법, 원어의 어휘를 그대로 번역문에 사용하는 방법, 역어에서 익숙히 알려진 다른 말로 대치하는 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 중, 전통문화 관련 어휘의 대부분은 일본문화에 생경한 어휘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번역한 사람은 이들 우리식 어휘를 한자로만 바꾸어 번역하는 손쉬운 방법을 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으로 번역된 안내문은 이를 접하는 일본인 관광객들에게 난해함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통문화를 제대로 전달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1) 건축 관련 용어

한국관광공사가 제공하고 있는 Tour2korea의 안내문에는 비교적 전통건축과 관련된 설명이 적어서인지 건축 관련 용어의 오류는 거의 없었다.¹⁰⁾ 그러나 서울시가 제공하고 있는 Visitseoul의 안내문은 Tour2korea의 안내문과 달리 지붕의 모양을 설명하는 어휘인 [팔작(지붕)], 궁의 명칭인 [법궁, 별궁]과 같은 건축 관련 어휘를 [八作(屋根), 法宮, 別宮]과 같이 한자로만 바꾸어 놓거나, 건물의 크기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어휘인 [間口, 奥行]을 알지 못하여서인지 우리말 원문에 쓰여 있는 어휘를 한자로만 바꾸어 [正面, 側面]으로 번역하거나, 박공 밑의 삼각형 모양의 풍판(박공벽)을 나타내는 어휘인 [pediment]를 [pediment]가 아닌 [gable]로 번역하거나 하는 등의 오류가 상당수 있었다.

인쇄매체인 리플릿의 경우에는 상기에 제시한 오류 외에도 [용마루, 행각과 복도, 정자와 누정, 편전] 등을, 표지매체의 경우에는 [우진각(지붕), 중궁전, 빈궁, 행각, 행랑, (줄)행랑, 행랑채, 사랑채, 안방, 건넌방, 누다락, 외진과 내진] 등을 한자로만 바꾸어 놓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 어휘로 번역하여 놓는 오류를 범하고 있었다. 이들 어휘는 한자로 바꾸어 놓았을 때, 일본어 어휘와 일치를 이루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 주의를 요한다.

전통 건축과 관련이 있는 어휘들은 우리의 것과 일본의 것을 비교 정리하여 매뉴얼을 만들어 놓는다면 관련 번역사들이 일관성 있는 번역을 하는데 도

10) [궁궐, 침전] 정도의 건축 관련 어휘가 있을 뿐이었다.

움이 될 것이다.

(2) 문화 관련 용어

이는 일반적으로 우리의 전통문화를 소개할 때 사용하는 어휘를 말한다. 세 매체 중 인터넷매체인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Tour2korea의 안내문에는 문화 관련 용어의 사용이 적어 크게 문제가 되는 번역이 없었으나, 서울시가 제공하고 있는 Visitseoul의 안내문에는 [해태상, 일월오봉병], 인쇄매체인 리플릿 안내문의 경우에는 [어진, 심장생무늬, 일월오악도, 하례, 조희, 조하, 수조정전], 표지매체의 경우에는 [여의주, 용안, 용포, 용상, 인동당초문과 해태상]과 같은 어휘들을 한자로만 바꾸어 놓는 번역 방법을 취하고 있어, 우리의 전통문화를 일본인 관광객에게 전달하는 데에 문제가 있었다.

한 사례로 [오봉일월도]와 같은 어휘는 매체별로 표기 방법이 달라, Visitseoul의 안내문에서는 [日月五峯屏]으로, 리플릿 안내문에서는 [日月五岳屏風]으로, 길잡이시설 안내문에서는 [日月五嶽(獄)¹¹⁾圖]라는 식으로, 일관성 없이 번역되어 있었다. 이 또한 전통건축 관련 어휘와 마찬가지로 매뉴얼을 만들어 놓는다면 일관성 있는 번역을 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3) 직위 관련 용어

여기서 말하는 직위 관련 용어란 조선시대 국왕을 비롯하여 왕비, 후궁, 그 밖의 왕족 호칭과 영의정과 같은 관직을 나타내는 어휘를 말한다.

인터넷매체인 Visitseoul의 안내문의 경우에는 일본어에서 사용하지 않는 어휘인 우리말의 [대원군]이나 [대비]를, 인쇄매체인 리플릿 안내문의 경우에는 [옹주]를, 표지매체인 길잡이시설 안내문의 경우에는 [계비]나 [계후]와 같은 어휘를 그대로 한자로만 바꾸어 번역을 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주고 있었다.

또한, 세 매체 모두 [대군, 후궁, 세자]와 같이 일본어에서도 사용은 하지만 우리말과 그 쓰임에 차이가 있는 어휘를 한자로만 바꾸어 사용하여 이해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번역의 오류도 있었고, 이 밖에도 [영의정]이나 [판윤]과 같은

11) 경복궁 근정전 보수 공사(2003, 11월)가 끝나기 전까지, 근정전 앞에 전시되었던 안내문에는 [큰 산악 岳]으로 표기하여야 할 것을, 표제어에는 [큰 메 嶽]으로, 그 아래 설명문에는 [지옥 獄]으로 표기하는 오류도 있었다.

관직명을 한자로 바꾸어 놓기만 하는 번역 오류도 있었다. 특히, 조선시대의 국왕을 번역하는데도 일관성이 없어서, 표지매체인 길잡이시설 안내문 같은 경우, 우리말의 [임금, 국왕, 왕]을 [王, 國王, 王様] 등으로 각기 달리 번역하고 있었다. 한일 양국의 직위 관련 용어가 동일할 수는 없지만, 일관성 있고 의사전달에 무리가 없는 번역을 위해서는 관광안내문 번역을 위한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2.2. 역사 관련 어휘상의 문제

여기서 말하는 오류는 시대 표기나 역사적 사실을 서술함에 있어 그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어휘가 잘못 쓰인 경우, 어휘의 사용에 일관성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그 대표적인 사례만을 뽑아 기술하면 아래와 같다.

안내문의 내용이 부정확한 번역 사례로, 인터넷매체인 Tour2korea의 안내문의 경우에는, 덕수궁 정관현의 뒤쪽으로 러시아 공사관으로 통하는 비밀통로가 있었다고 하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기술한 사례¹²⁾, 표지매체인 길잡이시설 안내문의 경우에는, [임금의 가마가 지나가는 길]인 [답도]를 [임금이 근정전으로 오를 때 밝고 오르는 디딤돌]이라고 설명한 사례와 [임금의 권위를 상징]하는 근정전 앞에 놓여 있는 [정(鼎)]을 [향로]라고 설명한 사례 등을 들 수 있다.

어휘 사용이 잘못된 경우의 사례로, Tour2korea의 경우에는 일제강점기에 그 명칭이 격하되어 한동안 [秘苑]으로 불리었으나, 이제는 [後苑]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창덕궁의 [後苑]을 [秘苑]이라고 번역해 놓은 사례(홍대형 156), Visitseoul의 경우에는 우리말 원문의 [태종]을 [태조]로 번역한 사례, 인쇄매체인 리플릿의 경우에는 [영왕 내외분]을 [英國國王夫妻]로 번역한 사례¹³⁾가 있었으며, [1592년의 임진왜란]은 [文祿の役]임에도 불구하고 세 매체 모두에서 [文祿・慶長の役]로 번역한 사례 등이 있었다.

어휘 사용에 일관성이 없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인쇄매체인 리플릿 안내

12) 2003년 5월 10일 MBC 문화방송의 ‘토요일엔 떠나볼까’에 출연했던 덕수궁 유물전시관 직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다.
13) 2003년 가을에 다시 제작된 리플릿 안내문에는 [英王]으로 수정 번역되어 있었으나, 이 또한 영국 국왕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문의 경우에는 [조선시대 제9대왕 성종]을 지칭함에 있어 [成宗王 / 朝鮮王朝の第9代成宗 / 朝鮮王朝の成宗 / 朝鮮の成宗]으로, 표지매체인 길잡이시설 안내문의 경우에는 동일 인물인 [태조]를 기술함에 있어 [太祖(李成桂) / 太祖(朝鮮王朝の一代目の王様) / 朝鮮第1代王]과 같이 각기 달리 표현하는 사례들이 있었다.

이 밖에도 [일제 / 일제강점기]와 같은 어휘를 일본어 번역 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¹⁴⁾에 대한 문제와 조선왕조를 일본과 대등한 자주 국가가 아닌 일본 천황 밑의 한 귀족 가문과 같은 존재로 격하시키기 위한 일본의 의도가 담겨 있었다고 하는 [이왕가 미술관, 이왕직 미술관(홍순민 204, 홍대형 253)]과 같은 어휘의 번역, 창덕궁의 인정전 용마루에 박혀 있는 구리로 된 꽃문양을 나타내는 [오얏꽃 문양(홍순민 259-260)]과 같은 어휘들을 일본어 안내문에 굳이 번역해 놓아야 할 것인가 등에 대한 문제 등이 남아있다.

상기와 같은 오류를 막고 일관성 있는 번역을 위해서는 어휘를 정리해 놓은 매뉴얼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한일 관계사와 관련이 있는 어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일정한 원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 정리 및 제언

필자는 일본어로 번역된 관광안내문의 번역 오류가 일본인 관광객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이미지 손상과 더 나아가 관광객 유치, 관광산업의 선진화에 커다란 장애가 된다는 생각 하에 2002년 4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약 30여 개월에 걸쳐 고궁과 관련된 각 매체의 자료를 직접 촬영 수집하였고, 그동안 3회에 걸쳐 각 매체별 번역 오류의 문제점을 발표한 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들 세 매체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종합 정리함과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관광안내문의 한일 번역 시, 일관성이

14) 우리말 원문의 [일제, 일제강점기]에 대한 일본어 번역은 [日本帝國, 日本統治時代]로, 그 기간을 나타내는 번역어로는 [日帝植民時期]로 번역하는 등, 필자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문제를 안고 있었다.

있고 신뢰성이 있는 번역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어휘 목록을 만드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이들 어휘 중 그 일부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4.1. 건축 관련 용어

고궁의 관광안내문에는 일본어로 번역시 일 대 일의 대응을 보이지 않는 어휘로 [계자난간, 솟을대문, 연가] 등과 같은 건축 어휘도 상당수 있었다. 아래와 같은 어휘목록은 번역가들이 전통건축과 관련된 번역을 하여야 할 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우리말	번역어	의미 또는 대체어	비고
궁궐 / 궁전	宮殿	帝王の住む御殿。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왕의 거처와 관청을 아울러 갖춘 건축물.
정전	正殿	宮殿の中心をなす建物。	궁궐에서 조화를 하던 건물.
편전	表御殿	便殿; 天皇、皇后が休息されるために臨時にもうけた場所。	편전; 왕과 신하가 어전회의를 하던 건물.
침전	寢殿	天子の平素起臥される宮殿。	왕과 왕비가 잠자는 방이 있는 건물.
중궁전 / 내전	後宮 王后の御所	后妃や女官たちの住む宮中の奥御殿。	일본어의 [後宮]은 건축용어이며 [秋ノ宮]에 해당함.
법궁(정궁)	x	朝鮮王朝第一の宮殿。 王宮。	일본어에서의 正宮은 [王の正室。王妃や皇后]를 뜻함.
이궁	離宮	皇居とは別に設けられた宮殿。	이궁; 화재나 병고 시에 왕이 상당기간 머물며 활동하는 또 다른 궁.
행궁	行宮、 仮宮	天皇の行幸先に仮に設ける御殿。	왕릉 행차와 같은 행사 시 지방의 군현 관아에 마련해 놓았던 궁.
동궁	東宮	皇太子の宮殿。	東宮御所又は青宮。
빈궁	仮殯(荒城)の宮	殯; 昔、貴人の死体を葬る前に、棺に納めてしばらく安置したこと。	빈궁; 상여가 나갈 때까지 왕세자나 왕세자비의 관을 두던 곳.
경내	宮廷の中	境内; 神社、仏閣などの敷地内。	한일 양 언어에서의 쓰임이 다름.
정면5칸 측면2칸	間口5間 奥行2間	間口の柱間が五つ、奥行の柱間が二つの意味で5間2面とも言う。	間口; 家屋などの前面の幅。 奥行; 家や地面などの表から置くまでの距離。

4.2. 문화 관련 용어

문화 관련 용어는 일반적으로 우리의 전통문화를 소재로 할 때 제시되는 어휘들로 한일 양 언어에는 동일한 한자로 번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전혀 다른 어휘 또는 설명문을 제시하여 번역해야하는 경우도 많았다.

우리말	번역어	의미 또는 대체어	비고
어진	御眞影	天皇・皇后兩陛下の肖像畫・寫眞の敬称。	임금의 畫像이나 사진.
하례	朝賀	朝賀; 朝廷に出て王に賀礼すること。 。諸臣が朝廷に參上して、天子に喜びを申し上げたこと。	문무백관이 임금 앞에 나와 축하의 예를 갖추.
조회	朝見・朝議	臣下が參内して天子に拝謁すること。朝廷の會議。	朝會; 仕事や授業を始める前 に行う朝ごとの行事。
일월오악도/ 일월오봉병	x	オボンイルワールド(五峰日月図); 韓國の有名な五つの山と太陽、月、松ノ木などが描かれた屏風。	우리나라의 다섯 명산과 해, 달, 소나무를 그린 그림 또는 병풍.
해태(상)	x	ヘテ; 想像上の動物で、正義と法の象徴物である像。	시비, 선악을 판단하여 안다고 하는 상상속의 동물.
여의주	摩尼 如意宝珠	如意宝珠; 一切の願望をかなえるという、伝説上のたま。	용의 턱 아래에 있는 영묘한 구슬로 이것을 얻으면 무엇이든 뜻하는 대로 얻을 수 있다고 함.
담도	x	王の乗っている駕籠が通る石段中央にある道。	봉황무늬가 새겨진 너럭바위로 임금의 가마가 지나가는 길.
정	鼎	王の權威を象徴するもの。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

4.3. 직위 관련 용어

[한성부 판윤 남정철]이나 [영의정 남구만]과 같은 관직명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타카나로 인명만을 표기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말	번역어	의미 또는 대체어	비고
월산대군	王子、ウオルサン(月山)デグン	大君; 天皇の称。	일본어에서의 [大君]은 우리말과 달리 친왕을 칭함.
대신	臣下	各省廳の長官と無任所大臣の總称。	보다 폭넓은 의미를 나타내는 [臣下]를 사용함이 적합함.
임금, 국왕, 왕	王		우리말 번역문에는 [國王, 王様, 王]등으로 번역하고 있으나, 용어를 통일할 필요가 있음.
왕후, 왕비, 계비, 계후	王后, きさき	后; 임금의 정실부인을 나타냄.	우리말의 正妃와 繼妃는 모두 왕의 정실부인을 나타냄.
후궁, 후비	妃	妃; 임금의 측실, 즉 왕후의 다음 자리에 있는 후궁.	일본어에서의 [後宮]은 [后妃や女官たちの住む宮中の奥御殿]의 뜻을 나타냄.
수문장	x	門衛(門を守る人、門番)。守衛。	수문장 교대의식을 하는 이는 수문장만이 아니므로 전체를 나타낼 수 있는 어휘로 대체함.
옹주	王女	王の娘。	
의관	x	御殿医(御典医)、典藥。	典藥; 昔、宮廷で医藥を司った者。 御殿医; 江戸時代大名に勤めた医者。
세자	王子	世子; 殿様、諸侯の後継ぎ。	일본어에서의 세자는 우리말과 그 격이 다름.
홍선대원군	高宗の生父であるフンソン(興宣) テウオングン	高宗の生父。	대원군은 임금이 대를 이을 자손이 없어 방계로서 왕위를 이은 임금의 친아버지에게 주던 벼슬.

필자가 금번 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¹⁵⁾는 세 매체의 일본어 역 고궁 안내문의 내용에는 부정확하고 일관성이 없으며 신뢰도가 떨어지는 번역 오류가 많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다 수준 높은 일본어 역 관광안내문을 만들어 우리나라를 찾는 일본인 관광객들에게 우리의 문화와 역사를 제대로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번역 이전의 우리말 원문의 작성이 제

15)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기점으로 많은 부분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수정을 요하는 곳이 많다.

대로 이루어져야 하겠고, 보다 철저한 원어민의 감수가 필요하며, 전통문화 및 역사 관련 어휘를 일관성 있게 정리한 어휘목록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¹⁶⁾ 이 밖에도 우리의 전통문화와 역사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번역사의 양성과 더불어 번역사의 번역물에 대한 실명제 도입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강경선. 2003. 『이야기가 있는 경복궁 나들이』. 서울: 역사넷.
- 교육인적자원부. 2002. 『교과서편수자료 II-1』.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권영미. 2001.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서울: 한국관광공사.
- _____. 2002.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서울: 한국관광공사.
- 김경호. 2003. 「한국내 관광지의 일본어안내문 번역에 관한 실태조사와 문제점 연구」. 『일본어학연구』7집, 1-18. 한국일본어학회.
- 김동현. 2002. 『서울의 궁궐 건축』. 서울: 시공사.
- 김명순. 2002. 「韓日번역에서 보이는 오역의 類型」. 『BK21 ITI논문집』, 1-12. 한국외국어대학교 ITI논문집.
- 김문경. 2004. 「외국인 FIT 관광객 안내체계 개선방안」. “청사초롱” 10. 한국관광공사.
- 김봉열. 1985. 『한국의 건축 — 전통건축편』. 서울: 공간사.
- 김왕직. 2002. 『그림으로 보는 한국 건축용어』. 서울: 도서출판 발언.
- 김향자. 1999. 「관광안내정보 시스템 구축방안」. 『관광I&I정보』 4, 1-4. 한국관광연구원.
- 김효중. 1998. 『대우학술총서 인문사회과학 103 번역학』. 서울: 민음사.
- 박명희. 2002. 「문화관광자원해설의 만족도 평가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16) 금번 연구를 통해 얻게 된 전통문화 관련 어휘는 지면 관계 상 그 일부만을 [4. 정리 및 제언]에 제시하였으나, 어휘 선정 상 어려움이 있어 미해결인 상태로 남아 있는 역사 관련 어휘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 점에 대한 연구는 금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 구』. 11-2, 1-27. 한국관광레저학회.
- 박석희. 2000. 『신관광자원론』. 서울: 일신사.
- 박영규. 1996. 『한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 서울: 들녘.
- 윤장섭. 2001. 『일본의 건축』.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李基白. 1994. 『韓國史新論』. 서울: 일조각.
- 이덕수. 2004. 『新 궁궐기행』. 서울: 대원사.
- 이석규. 2002. 『우리말답게 번역하기』. 서울: 도서출판 역락.
- 이승재외 7인. 2001. 「국내 공공기관의 번역 현황」. 『번역학연구』 2: 2, 57-107. 한국번역학회.
- 전국역사교사모임. 2002.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1, 2』. 서울: 휴머니스트.
- 정길남. 2003. 『국어 오류 분석』. 서울: 한국문화사.
- 정성애. 2003. 『일본시장 일일모니터링 조사 결과』. 서울: 한국관광공사.
- 정일영. 2002. 「일본어역 관광자원해설 리플릿에 나타나는 오류에 관한 연구」. 『번역학연구』 3: 2, 113-131. 한국번역학회.
- _____. 2003. 「웹 사이트의 일본어역 관광안내문 오류에 관한 연구」. 『번역학연구』 4: 1, 73-95. 한국번역학회.
- _____. 2004. 「고궁 길잡이시설 해설안내문의 일본어번역문연구」. 『일본학보』 59집, 187-202. 한국일본학회.
- _____. 2004. 「일본어역 고궁안내문의 문제점 연구」 105-112. 한국번역학회 프로시딩스. 한국번역학회.
- 허갑중. 1999. 「관광표지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 『관광&I정보』 1, 1-3. 한국관광연구원.
- _____. 1999. 「관광진흥을 위한 표지판 선진화의 과제」. 『관광&I정보』 1, 7-14. 한국관광연구원.
- _____. 2000. 「우리나라 관광안내체계에 대한 진단과 처방」. 『관광&I정보』 2, 1-5. 한국관광연구원.
- _____. 2002. 「관광안내정보체계의 표준화 방안」. 『한국관광정책』 통권 제12호, 1-3. 한국관광연구원.
- 홍대형. 2001. 『한국의 건축문화재』. 서울: 기문당.
- 홍순민. 2001. 『우리 궁궐 이야기』. 서울: 도서출판 청년사.

《日本 参考 文獻》

- 日本語教育學會編. 1998. 『日本語教育ハンドブック』. 東京: 大修館書店.
- 武内一良. 1998. 「外國人を對象とした観光案内に用いられる英語表記に関する研究」. 『観光研究』, 1-8. 日本観光研究學會.
- _____. 1999. 「観光對象に付設された英文解説」. 『異文化コミュニケーション』. No.34, 5-10. 異文化コミュニケーション研究所.
- 東京書籍編集部. 2002. 『ビジュアルワイド 図説 日本史』. 東京: 東京書籍.
- 明治書院企畫編集部. 1997. 『日本語誤用分析』. 東京: 明治書院.
- 太田博太郎. 2003. 『日本建築史序説』. 東京: 彰國社.
- 大橋良介. 1993. 『文化の翻譯可能性』. 京都: 人文書院.
- 上田 篤. 1978. 『日本人とすまい』. 東京: 岩波新書.
- テクニカルコミュニケーション研究會編. 2002. 『文章・用字用語ハンドブック』. 東京: 日経BP出版センター.

K C I

[Abstract]

A Study on the Errors Found in Japanese Language Tourist Information Materials

Chung, Il-Young
(Kyung Hee University)

Many errors and mistakes have been found in Japanese language tourist information materials even though it should be consistent in basic structures, accurate, clear, and credible, as well as easy to understand. Japanese tourists experience much difficulty in understanding Korean culture because of the inscrutable and misused phrases in the tour information in Korea including palace information.

This paper is to analyse the problems in tour information listed in various media such as, webpage materials printed matters, and tour information in palaces. It also concerns the list of terms which can be used by the organizations or individual translators working for the organizations.

►Key Words: translational errors, translating consistent and reliable texts, Japanese sense naturally

정일영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 교수

sophi@khu.ac.kr

관심분야: 일본어학, 관광 안내문 번역

논문투고일: 2006년 4월 21일

심사완료일: 2006년 5월 30일

게재확정일: 2006년 6월 10일

K C I